

제3장 음성권 침해 사례



제3장 음성권 침해 사례

사례 23

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.

사 건	2015부산조정26, 27 각 손배청구
신 청 인	이○○
피 신 청 인	1. 주식회사 케이엔엔 (KNN) 2.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엔 (iKNN)
중 재 부	부산중재부
접 수 일	2015. 03. 31.
처 리 결 과	취하 (기사삭제)

사건개요

-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, 음성변조 없이 방영하였다.
- 이에 대해 신청인은 승부조작 의혹을 제보한 자신을 향의 고객이라 표현하면서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각 5,000,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.
- 피신청인 측이 심리 전 기사를 삭제하고 신청인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,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.

조정대상보도

- KNN - 뉴스아이 프로그램 『유력 우승마의 부진, 승부조작 논란으로』 제하의 보도 (2015년 3월 30일자, iKNN 3월 30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)

내 용 - <전략>



조정신청취지

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사건처리결과

취하 (기사 삭제)

사례 24

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, 음성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.

사 건	2015서울조정2237, 2238 각 손배청구
신 청 인	박○○
피 신 청 인	1.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(JTBC) 2.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(주) (인터넷 JTBC)
중 재 부	서울제6중재부
접 수 일	2015. 02. 13.
처 리 결 과	조정성립 (손해배상)

사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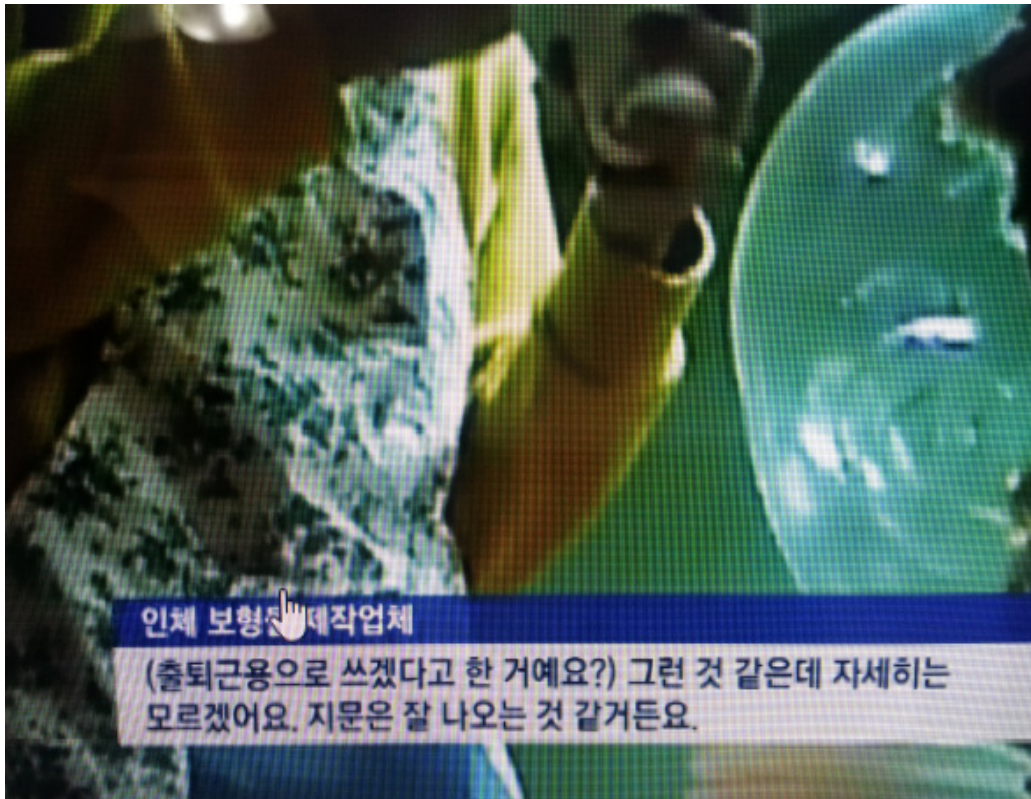
-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했다.
-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제작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되었을 뿐 만 아니라 보도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이 했던 말의 순서를 임의로 바꿔 편집하였고, 불완전한 음성 변조로 인해 신청인이 누군지 주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며 각 10,000,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.
- 심리 결과, 중재부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처리했어야 하며 피신청인은 음성이 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,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3,000,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.

조정대상보도

- JTBC - 저녁 9시뉴스, 오전 8시뉴스 프로그램 『제조에 25만원 ‘가짜 실리콘 손가락’ 직접 만들어보니...』 제하의 보도 (2015년 2월 11일 및 12일, 인터넷 JTBC 2월 11일자 <저녁 9시뉴스>, 2월 12일 <오전 8시뉴스> 프로그램 다시보기)

■ 내 용

- ▶ 앵커 :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,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이 실리콘 손가락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정말 지문인식기에 입력이 가능했습니다.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체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해줬습니다. 심수미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.
- ▶ 기자 : 의료용 인체 보형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. 지문 복제가 가능하냐고 묻자 여러 번 해봤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.



- ▶ 인체 보형물 제작업체 : (출퇴근용으로 쓰겠다고 한 거예요?)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지문은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.

▷ 기자 : 가짜 손가락 제작에 드는 돈은 25만원. 실제 사람이 등록한 지문을 가짜 손가락이 대체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. 이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저희 취재진의 손가락입니다.

[지문을 입력하여주십시오. 인증되었습니다.]

▷ 기자 : 굳게 닫혔던 문이 간단히 열립니다.

물론 지문인식기 중에 실리콘을 아예 못 읽는 것도 있습니다.

18만원에서 80만원대까지 가격도 성능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.

하지만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30만원대 이하 중저가 제품입니다.

▷ 지문인식기 제조업체 : (보통 공공기관에서 어떤 걸 사가요?) 보통 30만~40만원대에서 선택하는데... 오인식이 가능합니다.

▷ 기자 : 실리콘도요?

▷ 지문인식기 제조업체 : 네

▷ 기자 : ‘가짜 손가락’을 쓰는 공무원 수는 은밀하게 늘고 있습니다.

(중략)

▷ 기자 : 일부 공무원들의 이기심에 세금은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.

조정신청취지

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10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사건처리결과

조정성립

조정성립사항

1.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, 그 지급기한은 2015년 4월 10일로 한다.
2.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.
3. 피신청인들은 2015년 4월 1일 10:00부터 인터넷 JTBC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 내용 중 신청인이 포함된 화면을 삭제한다.
4. 피신청인들이 위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.
5.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
2015. 03. 25.

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

손해배상금 3,000,000원 지급